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 방안

수행과제명 :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김혜영 연구위원

Tel: 02-3156-7139, e-mail: khyoung222@kwidimail.re.kr

요 약

결혼의 지체 및 출산연기, 이혼이나 독신인구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삶의 방식과 비정형 가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편견이나 가족주의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한 편견과 모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것임. 한국의 미혼모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될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과 실질적인 여성지위의 상승으로 결혼여부와는 별개로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미혼모의 발생원인과 경로를 살펴보고, 미혼모의 특성과 함께 이들이 미혼모의 삶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출산후 양육과 입양의 기로에서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선택이 미혼모들의 생활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음.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미혼모의 특성과 이에 따른 지원요구분석을 통해 미혼모의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미혼모의 증가와 함께 양육미혼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2005년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관입소 전체 미혼모 가운데 양육희망 미혼모의 비중은 31.7%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결과에서는 이미 자녀양육을 선택하였거나 현재 양육을 계획중인 미혼모의 응답율이 5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들은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평균 3.18:1-4), 특히 양육미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와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보다 ‘마음의 혼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에 비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와 30세 이상의 미혼모들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아기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개선될 경우,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면 전체 응답자의 53.0%, 사회적 편견이 개선될 경우는 57.0%로 자녀양육의사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편견 개선방안 마련이 중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저소득 미혼의 경제적 자립방안의 일환으로 자녀가 만 3세까지가 될 때까지는 기초수급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즉 저소득 미혼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최소한의 시기 동안에는 이들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초수급자의 자격을 부여
- 미혼모자시설에서의 직업훈련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일센터나 직업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구직활동 및 현재 취업훈련이나 취업한 미혼모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우선적용 방안
-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경우에는 학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학업도우미와 아이돌봄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 한국사회의 경우 주거비용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양육 미혼모의 시설의 최소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 SH 공사 등의 협조를 통해 양육미혼모들의 생활거주지 지원

3. 정책효과

- ☐ 양육미혼모들에 대한 초기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양육미혼모와 이들 자녀의 빈곤유입 경로 차단
- ☐ 미혼모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화 과정 지원
-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통합